

특별기고

오월을 보내며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

오월에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니, ‘생각을 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겠다. 그 어떤 무엇인가가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탁 하니 막히고 답답했다. 그렇게 멍하니 계절의 여왕이라는 ‘오월’ 한 달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반문하자면 필자만 그러한 심정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수많은 광주 시민이 나와 같이 가슴 속에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응어리를 담고 있을 것이다. 지난 80년 오월의 상처는 외형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오늘날까지 진행형으로 보인다.

시립미술관장으로 일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광주의 지나가버린 ‘5월 정신’을 주제로 하는 ‘1980년대 광주진중미술展’을 기획했다. 나는 지난 5월8일 열린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우선 이곳에 앉아 계신 26명

의 작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1980년 5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침묵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멍하니 있을 때, 적은 수의 몇 작가들은 깨어나 있었습니다. 당시들은 자유, 민주, 평화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인식하고 있었고, 의기투합 북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 그 가슴 아픈 상황이 그림으로 남아 지금 이렇게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새로운 증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의 미있는 전시가 지체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공동으로 전시를 주최한 광주 5·18기념문화재단에 감사를 표합니다. 더욱이 ‘임을 향한 행진곡’을 작곡하신 김종률님이 오늘 직접 선창해주신다니 더욱 감사드립니다”라고 내외 귀빈들에게 진심을 담아 전달하였다.

이번 전시를 위해 광주시립미술관은 198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 제작된 미술작품과 사료들을 한 장소에 모았다. 대표작가들의 1980년대 회화작품과 판화작품, 미술단체들이 제작한 걸개그림, 조각 등의 작품 등을 볼 수 있다. 당시의 광주·전남 작가들은 1980년 오월 광주의 참담한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작품으로 담았기에 1980년대 광주진중미술은 더욱 의미가 깊고 진실하다.

이들 작가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

건을 사실적 또는 은유적 방법으로 작품에 담았으며,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그들이 가장 자신 있는 작품 제작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실 문제를 비판적 시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오월의 상처는 피해를 당한 광주 시민만의 상처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상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모여진 수많은 작품과 사료들은 현실 참여의 한국 민중미술의 근원을 보여주며, 민주, 인권,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귀중한 성과물이고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오늘날 우리의 희망과 바람은 이번 전시를 기회로 광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1980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가치와 민주인권의 이념으로, 그리고 문화의 꽃으로 새봄개 피어나는 것이다.

광주의 오월을 담아냈던 1980년대 미술가들은 어느덧 중년이 되었다. 돌이켜 보니, 나는 항상 조심, 조심하는 작은 가슴을 갖고 있었다. 대학 선생을 하면서도 제자들이 위험한 곳에 갈까봐 조마, 조마한 마음이었다. 5월이 다가오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 특히 홍성담, 전정호, 이상호, 이사범 등은 모두 나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소리만 듣고 지냈을 것이다.

그런데 올해 5월은 유난히 많은 소리들이

요란하고 거칠게 들려온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 한구석이 멍하니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열도당도앓개 큰 뜻으로 가슴을 두드려 맞고 있다. 보지도 듣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무슨 작대인가?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었고, 목격하였으며, 체험했고, 또 슬퍼하였으며, 분노했었는데…, 우리는 그 역사의 진실을 알고 있는데…….

모든 시민들이 함께 깨어 일어나 서로가 서로를 부동켜안으며 위안하고, 역사적 비극을 잊지 말자고 다짐하며, 후세에는 이러한 슬픔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감내하고 있는데, 오늘의 상황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나만이 아닌 많은 광주시민들이 아마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이 울려, 분노의 감정으로 일어나다.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그 서운함과 분노가 이제는 세상사에 초연한 나이가 되었어도 감내하기 힘들게 다가온다.

이는 강준모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사회단체, 5·18문화재단과 관련단체들, 언론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역사의 진실을 바로 잡자고 변연히 일어난 오월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그것이 33년이 지난 2013년에도 ‘임을 향한 행진곡’이 더욱 가슴 절절히 찾아들게 하는 가슴앓이의 오월인 것이다.

종교칼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김재영  
광주 성안교회 담임목사

면 일곱 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무심코 흘리고 또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쌀 한 톨을 보면서 우리는 그 쌀을 위해 땀 흘린 수많은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겠다.

이러한 감사는 인간관계에서도 귀하고 소중한데, 자신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감사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행뿐만만 일삼는다면 건강한 마음을 해치게 되고 우리의 삶도 파괴된다. 불만은 마음속에서 나쁜 에너지를 만들고 되고 결국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찰스 스펀전(Charles H. Spurgeon, 1834~1892) 목사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된다”고 했다. 어떤 작가는 “신은 두 곳에 계시는 데 한 곳은 천국이요, 또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속이다”라고 말했다.

감사함으로 모든 불행과 저주를 끊어 버릴 수도 이겨낼 수도 있다.

하늘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송명희씨는 미

숙아로 태어났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뇌성마비라는 병원 진단을 받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살았다. 사춘기를 지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자기의 불행을 도저히 헤쳐나갈 힘이 없었다. 이렇게 불행하게 한 하남을 만나 따져 보려는 심산으로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원망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다. 받아 주는 학교가 없어 한글조차 배울 길 없던 그녀는 사춘이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우연히 보고 어찌 너머로 배워서 글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올리는 시들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

이 지역에도 감사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퍼져기를 바라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지난 23일 포항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범시민 감사운동 1주년 기념식에서 ‘감사 행복도시 포항’이라고 적힌 깃발을 흔드는 학생들. 포항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감사운동’이 시작됐다. 작은 수첩에 하루에 다섯 가지씩 감사할 일 쓰기, 한 달에 한 번 감사 편지쓰기, 문자메시지 보내기 등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공무원들을 시작으로 불과 1년여 만에 초·중·고교, 대학교, 군부대, 기업, 종교간

체, 상인회 등으로 퍼졌다. 인구 53만 명인 포항시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20만 명에 이른다. 시민 행복도가 지난해 8월 55.8점에서 지난해달 62.2점으로 높아졌다. 감사운동에 대해 포항시민 10명 중 8명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학교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포스코 교육재단 소속 학교들은 ‘고맙day’를 운영해 감사 마음 나누기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게 됐고, 포항여고 등 몇몇 학교는 감사노트 작기를 교육과정에 포함했다. 대구지정 포항지정 학교 폭력 등으로 상처된 학생들에게 반성문 대신 감사노트를 쓰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한 중학교의 경우 감사운동 이후 학생 범죄율이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1학년 393건·2학년 903건·3학년 2278건에서 지난 4월 1학년 169건·2학년 208건·3학년 314건으로 감소했다. 포항시 박정숙 감사운동TF 팀장은 “감사운동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새마을운동’이라고 말했다.

적극적인 감사아발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주변에 있는 것과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적어 보기를 바란다.

기고

국민주택기금 지원분 단계적 출자전환해야



김중광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회 의장

요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빚이 많다, 방만하다’ 등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다. 부채가 138조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28%에 해당하고, 부채비율도 497%로 다른 공공기관 평균보다 2.5배 이상 높으니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다.

더구나 최근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부채가 새정부의 새로운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LH 부채를 두고 과거 공공과 토공의 방만 경영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주공과 토공이 재무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직 확대만을 위해 정부정책사업과 지자체 그리고 국회의원 숙원사업을 맹목적으로 수행했었다는 비판과 함께, 매년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시기가 되면 빚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난도 있어 왔다.

LH 비상임이사가 됐을 때만 해도 필자역시 같은 생각이었지만, LH 비상임이사에 선임된 지 1년 반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봤을 때 LH 경영이 사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해 11월에 이사회 의장에 취임한 이후 더욱 LH 부채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138조라는 엄청난 부채가 단지 기관 자체의 부실로 또는 인건비와 일반경비를 마치 물 쓰듯 집행하는데서 비롯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LH의 부채는 LH가 공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정부를 대신해 서민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각종 국책사업(혁신도시, 개성공단건설, 여수엑스포 등)을 수행한 유산이 바로 LH의 부채이다.

풀어서 말하면 LH 부채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 확대에 있다.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시작된 1998년 이후 2011년까지 14년 동안 총 82만호, 연평균 6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했다. 하지만 1채 더 지으면 LH 부채가 약 1억 원씩 늘어나는 구조(자에서 바로 팔아 버리면 부채는 없어진다)이고 현재 남아 있는 34조 원의 국민주택기금 부채와 이에 대한 이자도 지속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관리비용도 늘었지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는 올리지 못하고 수선유지비는 계속 증가한 결과 LH가 부담하는 임대관리에 따른 손실만 해도 6000억 원에 이른다.

LH 부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은 LH 고유의 사업구조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한꺼번에 집중투여되는 반면,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 지난

10년 동안 세종시, 혁신도시, 신도시, 보급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투자는 재무역량을 초과해 급증했지만 회수는 지연되는 ‘미스 매치’ 결과 과거 다름 아닌 지금의 부채인 것이다. 더구나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판매부진 또한 LH 부채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LH 역시 부채 해소를 위해 피나는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 통합 이후 지금까지 LH의 경영진은 노조, 지역주민, 정치인, 정부 등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을 설득하고 ‘LH 경영정상화방안’을 꾸준히 이행한 결과, 사업 취소로 68조 원, 사업착수시기 조정으로 53조 원 등 총 121조 규모의 사업을 과감히 정리했다.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정년 직장을 떠나야만 했고, 남아 있는 직원을 또한 임금 10%를 반납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했다. 하지만, 공기업 중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불철주야 비용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LH 임직원들에게만 부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동안 국회도 정부도 LH 출범 이후 많은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LH 부채는 LH 자구 노력,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2013년 공공 부문 발주 물량의 36%를 차지하고, 새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의 지속적 수행을 담당할 LH가 만약 흔들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장기화시킬 수도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신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새정부가 출범하는 지금이 LH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싶다. 그것은 LH가 계속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분을 단계적으로 출자전환해 LH 숨통을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들이 정부와 국민의 부담도 덜어주고, 국토 균형개발과 더불어 서민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8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북한군 개입’ 진위, 국방부 가부로 답하라

5·18 33주년에 터져 나온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에 대해 가장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국방부의 예매모호한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북한군 개입설은 일부 종편채널 등에서 탈북자를 내세워 제기한 황당한 주장으로, 송고한 5·18 정신을 폄하한 것은 물론 국론분열 사태까지 몰고 왔다.

이 같은 혼란을 명쾌하게 잠식시킬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국방부로서 북한군 침투 여부를 밝혀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을 출동시켜 상황을 마무리한 국방부인 만큼 작전일지 등 공식 군사기록을 통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진위 여부를 묻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불분명한 입장을 내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군이 개입했을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쪽으로 오해의 소지를 키웠다. 되래 논란의 불

씨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국방부는 국회 청문회, 검찰 수사, 법원 판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수차례 조사에서 북한군 개입설이 없었던 사실을 모르는가. 군을 통제하는 국방부로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궤변이다. 30일 국방부는 광주시의 질의에 따라 보낸 공문에서도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의 모호한 태도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해 의구심만 증폭시킬 뿐이다. 즉, 극단적으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5·18 당시 북한군과 관련된 모종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국방부로서는 치명적이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왜 똑부러지게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가.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 여부를 ‘가부’로 답해 또 다른 왜곡을 막아야 한다. 명예를 최우선시하는 국방부가 권위를 지키려면 더 이상 머뭇거리서는 안 된다.

롯데마트 불법으로 ‘자리 장사’까지 하다니

광주지역 롯데마트 일부 점포들이 시민을 위한 공간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의무행사를 유치해 임대료 주고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 마트의 불법 상행위는 물론 구청 측도 이를 방치해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광주 상무점과 월 드림점 입구에 대형텐트를 설치해 지난 20일부터 아토티어 상품 기획전매진을 열고 있다. 이 시설은 규모가 크고, 길목을 점령하고 있어 고객이나 시민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 공간은 전체 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5~10%를 시민의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한 건축법상 ‘공개공지’에 해당한다. 롯데마트는 이 공간을 의무판매상에게 수익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임대해 왔다.

시민 휴식공간 등으로 쓰여야 하는 공개공지에서는 연 60일 이내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행위나 행사를 진행

할 수 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이를 시설을 임대하면서 해당 구청에 허가도 받지 않았다. 또 가건축물에 해당하는 텐트를 설치할 때에도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아마저도 무시했다.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해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것도 모자라 시민 드림점 입구에 대형텐트를 설치해 지난 20일부터 아토티어 상품 기획전매진을 열고 있다. 이 시설은 규모가 크고, 길목을 점령하고 있어 고객이나 시민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 공간은 전체 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5~10%를 시민의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한 건축법상 ‘공개공지’에 해당한다. 롯데마트는 이 공간을 의무판매상에게 수익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임대해 왔다. 시민 휴식공간 등으로 쓰여야 하는 공개공지에서는 연 60일 이내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행위나 행사를 진행

無 等 鼓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생한 생활상은 공식기록인 정사(正史)보다 개인의 일기에 더 잘 드러나 있다. 16세기 학자 이문건은 ‘양아록(養兒錄)’이란 양육일기를 남겼다. 이문건은 58세 때 2대 독자에게서 얻은 손자를 죽을 때까지 금이야 옥이야 키웠다. 그는 천연두를 겪은 후 음식을 먹지 않는 손자를 보면서 “할아버지는 네가 밥 먹기를 바라거늘 너는 어찌하여 밥 먹기를 싫어하느냐~ 타고난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와 위가 약하기 때문이리라”고 안타까워 했다.

손자가 14세에 술에 만취해 돌아오자 가족 모두에게 손자를 때리게 한 후 “늙은이가 아들이 이 손자를 의지하는데 아이가 지나치게 술을 탐하여 번번히 토하면서 누우침 줄을 모른다. 운수가 사납고, 운명이 박하니 그 한을 어떻게 감당할까”라며 탄탄했다.

양아록을 보면 손자에 대한 애정과 엄한 교육방법, 요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음주문화 등을 엿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5만 원의 토하면서 누우침 줄을 모른다. 운수가 사납고, 운명이 박하니 그 한을 어떻게 감당할까”라며 탄탄했다. 양아록을 보면 손자에 대한 애정과 엄한 교육방법, 요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음주문화 등을 엿볼 수 있다.

라는 평가를 받은 일기를 남김으로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강진 성전에 사는 김오동(76) 할아버지가 3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써 온 자신의 일기를 국가기록원에 기증해 화제다. 일기장에는 1977년 2000원이던 축의금이

2000년대 들어 5만 원의 토하면서 누우침 줄을 모른다. 운수가 사납고, 운명이 박하니 그 한을 어떻게 감당할까”라며 탄탄했다. 양아록을 보면 손자에 대한 애정과 엄한 교육방법, 요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음주문화 등을 엿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5만 원의 토하면서 누우침 줄을 모른다. 운수가 사납고, 운명이 박하니 그 한을 어떻게 감당할까”라며 탄탄했다. 양아록을 보면 손자에 대한 애정과 엄한 교육방법, 요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음주문화 등을 엿볼 수 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문(정·매일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